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과 건강안전망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건강부문

과제책임자 : 김영택 연구위원

Tel : 02-3156-7177, e-mail : ytk@kwidmail.re.kr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후 사회계층 이동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분석의 결과의 핵심은 1차 경제위기 후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계층 하락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변화하는 확률이 높고, 그들의 삶의 질 또한 낮아 보다 효과적인 건강안전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후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와의 분석이 결여되어 왔음. 경제위기 이후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사회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건강상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함이 필요함.
- ☐ 젠더적 관점에서 패널자료(panel data)를 활용하여 경제위기 후 사회계층의 변화와 건강상태의 변화를 추적해야 함.

- 심층면접을 통한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취약계층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젠더적 관점에서 사회계층의 변화와 불건강 상태로의 변화와 관련된 실증분석과 더불어 경제위기를 경험한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경제위기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취약 계층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의료)안전망 관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위기집단에 대한 기존 긴급지원제도의 의료지원 기간 및 범위 확대
 - 기존 의료지원을 최대 2 회로 제한하기 보다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과 같이 기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최소 6개월까지는 의료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기간과 함께 고려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의 경우 의료지원 기간 동안(6개월) 의료지원비용(6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케어(care)와 모니터링은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 및 단체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연계서비스는 여성 빈곤층과 이들 가구, 특히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기집단의 1차 의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재원확보를 통해 의료지원의 기간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건강보험 진료비 확대방안

- 취약계층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급여범위를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현재 외래 본인부담률 15%, 본인부담 상한선 6개월 120만원) 혹은 기존 대불금제도(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을 무이자로 대불하고, 대불기간 동안 균등상환), 본인부담보상제도(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그 초과 금액의 50%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자원 활용 및 확대방안

- 기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종합적인 건강매니저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확대방안

-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 후 취약계층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시되는 현 시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전업주부에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더불어 건강보험가입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만 40세 이상 기준을 만 35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함.

□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 후 취약계층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우울증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우울증 검진 확대 방안으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은 경제위기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취약계층, 특히 여성에게는 단기적이며 주기적인 우울증 검진을 통하여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대처 방안 및 치료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임.

□ 저소득층 비만 프로그램 도입

- 이번 심층면접연구에서 여성 중 저소득층 여성의 비만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적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경제 위기 이후 살이 많이 찼으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살을 빼지 못하고 있으며, 비만으로 인해 다른 질환의 악화되거나 신체적 부담이 많다고 하였음.
- 저소득층 여성들의 비만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개입이 지역사회 보건 의료체계속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확대

- 이번 심층면접연구에서 여성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이제까지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 5대 암 검진 대상자라고 통지가 와도 검진 받으려 갈 정신적, 물리적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하였음.
- 심층면접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검진은 의료 급여 혜택에 해당 안 되는 것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간과 공휴일 검진제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정책효과

- ☐ 사회의 주체로서 취약계층 여성의 삶의 질 및 건강 상태 제고
- ☐ 취약계층 및 위기집단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 향상 및 성별 건강형평성 제고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